

주일에배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11월 30일 (제 1334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계명(誠命)

예수를 믿고 난 어느 주일, 주일에배를 빼먹고 친구들과 지방으로 놀러 갔었다.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큰 부담 없이 나간 나들이였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차의 타이어가 터지는 대형 사고가 났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놀라서 경황이 없던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일을 다시 범하면 내가 너를 잡으리라.”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다.

계명(誠命), 계(誠)는 ‘경계하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다’는 뜻이고, 명(命)은 ‘목숨명’이다. 계명이란 목숨을 걸고 경계해야 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22:31).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계명을 지킨 것이고, 다니엘도 사자 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금령이 내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명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온 나라가 바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계명을 홀로 지키며 신앙을 지킨 엘리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여호와와 기쁨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는 계명을 지킨 다윗,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율례와 규례를 주셨지만,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을 십계명으로 압축하셨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리 힘들고 무거운 것들이 아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마땅한 것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3).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들듯,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욱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계명, 꼭 지켜라.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목사님과 함께 여정이 시작되면 이미 전쟁이다. 경유지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은 기도원 집회 때 보여주었던, 녹슬어 멈춰서 잡초가 뒤덮여있던 굴착기가 수리되어 움직이는 동영상 받아보시고 몇 번을 돌려보며 기뻐하셨다. 또한 아르헨티나(Argentina)의 올리엘(Olier) 목사가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릴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집회를 요청하기 위해 멕시코(Mexico)까지 찾아왔다는 소식에 시작부터 은혜가 넘친다며 만면에 희색이 가득하셨다. 그런데 날씨가 급변하더니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급기가 몬테레이(Monterrey) 행 비행기가 계속 지연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녁 7시까지 16회나 시간과 게이트가 변경되었다. 온종일 공항 작은 의

낮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차로 약 1시간을 달려 가르시아(Garcia)에 도착하였다. 집회를 주관한 마리오(Mario) 목사는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힘겨워 보였다.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노력이 그의 모습에서 역력히 느껴졌다. 이튿날 오전, 한창 준비 중인 집회 현장에 가보니 모래 먼지가 날리는 야외운동장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단상을 세우고 의자를 깔며 준비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집회 현장을 준비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테니 마지막까지 이번 집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셨다.

찬양과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마음이 열린 회중들을 향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약속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처처에서 회개의 눈물과 방언기도가 터지고, 귀신들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요4:48)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에야 더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는 올리엘 목사의 아이 빅토리아(Hay Victoria), 라구나(Laguna), 엑토르(Hector), 마리오, 오스칼(Oscar), 헤라르도(Gerardo) 목사 등이 함께 부르는 ‘이스라엘의 능력의 하나님(EI es el poderoso de Israel)’으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였다.



2025 멕시코 카르시아 집회 광경

자에 앉아 시차에 허덕여야 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억만금을 줘도 안 간다’는 목사님 말씀이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비행기가 출발했고, 밤 10시가 돼서야 멕시코 몬테레이 공항에 도착했다. 기다리는 사람들도 오후 내내 공항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렸으니 힘들었을 터, 그러나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니 모든 피로가 가신다. 무려 18년 만에 재회하게 되는 올리엘 목사 부부를 만나며 목사님은 열싸안고 기뻐하셨다. 마치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만나는 감격스런 장면이었다.

회가 시작되었다. 목사님이 등단하시기 전에 목사님의 집회 영상을 보여주었고, 목사님은 항상 그러하시듯 단에 올라 먼저 이 땅에 온 목적,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러 왔다’고 선포하신 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간증을 가는 데마다 하듯이, 목사님은 ‘40여 년 전 사지가 마비되었던 순간 예수를 목놓아 불렀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며 고침을 받아 지금까지 복을 전하러 다닌다’고 간증하셨다. 영상과

연회장을 미리 둘러보신 목사님은 식사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만 진열하라고 지시하셨다. ‘세미나가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기본 자세부터 틀리고쳐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시듯, 목사님도 변함없이 동일한 방법과 자세로 임하신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언제나 항구여일한 모습이다.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향만 있을 뿐이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회개한 영혼에 성령이 임하여 눈물로 방언기도하고 있다



목회자 세미나 후 생신축하 기념촬영



성령이 임하여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4:1~5)

권한을 받으면 책임도 따른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선(先) 순종, 후(後) 축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나야 법사에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은 선(先) 의무, 후(後) 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성(忠誠)’이란,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군인들이 경계할 때 ‘충성’이라고 외치지요? 무슨 뜻입니까? 군인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입니다. 그럼요, 국민도 4대 의무를 다할 때 마땅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탈세나 하고, 군대 안 가려고 별짓 다하는 자들은 권리 대신 징계가 따를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한 자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고 하십니다. 의무를 하면, ‘그리하면’ 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라

여러분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조장,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혹 직분이 완장인 양 행세나 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교회’는 어찌 씌름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자주 말하는데,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압니까?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어깨에 힘주면서 일도 안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꼭 행세를 하거든요.
목사나 전도사는 양 떼를 살피고 영적으로 살피도록 먹이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양 떼가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양들이 피죽도 못 먹어 뼈만 남은 줄도 모르고 자기 배만 살피우고 있습니다. 조장, 구역장이 구역에배도 안 드리고 구역원의 형편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장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이나 하고 본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저도 다 보고, 다 듣는데요? 그거 다 주님이 적어놓으셨다가 그날 “목사로 뭐했나?”, “장로로 뭐했나?”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이 회계(會計)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분명히 청지기를 불러 주인이 “네 보던 일을 셈하라”(눅16:2)고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셈하시고, 열 달란트 가진 자처럼 의무를 다한 자는 칭찬하시고,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실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키펴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고 한 것처럼, 저도 엄히 말합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인정하면 일하고, 몰라주면 안하는 자는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묵묵히 양 떼를 치



총회장 이초석 목사

킨 것 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둘째,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일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하신 것이고, 자신이 당할 일은 차치하고 요한의 장래가 궁금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요21:22)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 의무는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는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기분 나쁘다고, 달이 기분 안 좋다고 안 비치면 어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어떤 지휘자가 기분이 안 좋다고 지휘봉을 번으로 꺾어 버리고 나갔답니다. 그 사람, 허리가 꺾여 누웠고요, 교회 재정을 보던 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버렸는데, 그

사람,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냇바늘처럼 꾸준히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넷째, 의무를 잘하려면 몰두해야 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대상9:33). 찬송을 맡게 된 레위족장들이 찬송을 잘하기 위해 골방에서 그 일에 골몰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국무총리 대신이란 직위에 오른 후에 품만 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찌 잘할까 골몰했기에 애굽을 조강

을 어찌 잘할까 골몰했기에 애굽을 조강
국, 부국으로
만들어낸
것 입
니
다 .
저 도
우리 교
단이 ‘어찌하
면 부흥할까? 세
계를 어찌 교구화 하나?’
늘 연구하고, 그 일에 몰두했기에 오
늘에 이른 것입니다.

다섯째, 사도 바울처럼 의무가 ‘사명’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에 부모내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체포의 순간에도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두 영보다 많은 천사를 부리실 권세가 있으셨으나(마26:53~54),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빌2:9~10).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제 기능을 못해도 앓아 눕고, 수술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 임무를 못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막힙니다. 화장실만 못가도, 발에 티눈만 박혀도 몸 전체가 난리가 나듯, 아주 작은 일, 작은 의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물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계속하시지만, 이왕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곧 권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충성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함으로 상을 주시기 위함 아니까요(고전4:5).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고 한 사도 바울,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의무를 다한 자의 당당함 아납니까? 저도 이 세상을 마치는 날, 당당하게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눅22:30).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의 마음 그대로 쫓가는 겁니다. 처음 열심 그대로 쫓가는 겁니다. 그러면 족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그날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상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 말 잘 듣고, 잘 섬기면 요즘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해내면 하나님이 어여뻐 여기사 그날의 축복은 당연하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증여해주셔서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분을 주신 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런 자는 아담처럼, 사울처럼 버림을 받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농부들처럼 징계하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마21:41), 즉 의무를 다할 만한 자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진정한 권리는 나에게 주신 임무,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해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겸손

주님의 품성은 겸손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부족함을 채워주셨지만,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겸손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인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높임을 받고, 내가 높아지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믿음이 없는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하였습니다. 하루에 세 차례 기도하고,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며, 소독의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며, 종교적인 전통과 정결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우월감에 취해 다른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

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질책하며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섬김의 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간증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줄 때는 들어주어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뚜껑이 닫힌 장독대에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부어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바다에 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것은 마음이 높아져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교만은 악한 마귀의 속성이고,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할 때 강해지고, 낮아질 때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됩니다. 환난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는 머리를 숙이면 지나가게 됩니다. 겸손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상화평 목사**

새 성전으로 이전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경기 교회는 새 성전 입당을 위해 무려 15년 전에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올해에만 다섯 번의 작정 기도를 올렸다.

‘우리 형편에 꼭 맞는 성전’, ‘교통이 편리한 곳’, ‘예산에 맞는 장소’를 놓고 기도했지만,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시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듯, 우리의 노력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무의미하게 흐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였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주신다고 기뻐하고, 안 주신다고 원망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성령님께서서는 보이는 건물이 아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고백을 하도록 이끄셨고, 나는 눈물의 고백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 열흘 후, 성전 이전이 결정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갈라진 홍해처럼,

새 성전을 향한 15년의 목마름이 단숨에 해결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 형편과 위치, 예산은 물론, “지어져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그야말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았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선임 목회자분들의 눈물의 헌신과 성도님들의 간구로써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새 성전이라는 외적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경기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내게 더 큰 은혜로 남았다.

이제 우리에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 예수님을 닮아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이 그날에 받을 진정한 전대미문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12:15).

이 말씀을 읽으면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 첫 번째는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다. 심장에 이상이 있던 소견을 받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큰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시술을 앞두고 수 시간 전부터는 금식해야 했다.

먹는 시간에 맞춰 깨어나 우는 아기에게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어 맘이 아팠던 나는 아기와 함께 울었다. 회진차 들어오셔서 이 모습을 보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구, 배 많이 고프지? 그렇지만 지금은 먹으면 안 돼. 이따 다 끝나면 많이 먹자.” 하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건네신 그 한마디는 배고파 우는 아기와 마음 아파하는 내 마음 모두를 알아주는 말이었기에 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큰 병원에서 포기한 시술을 그 선생님을 통해 단 30분 만에 완벽하게 잘 마치게 하셔서 무사히 퇴원케 하셨다. 치료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고 살리는 그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다.

다른 한 번은 두 아기를 육아할 때의 일이다. 홀로 종일 아기들을 돌봐야 했던 데다

안팎의 문제들에 놀려영·혼·육이 곤고하기 이를 데 없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대화하던 중 어느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바라보며 얘기를 듣던 그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국진아, 많이 힘들지?”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그는 나와 함께 울었고, 그것은 나에게 치료약이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고, 그때 그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눈물이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이, 보잘것없이 망가진 듯한 사람을 위해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우시고, 살리고자 하시며, 끝내 살려내신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심한 자, 고통받는 자, 마음이 묶인 자를 위해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 되어 십자가, 그 사랑의 전달자들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1:7).

이국진 사모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내가 문산교회에 발령을 받고 나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는 기도가 있다.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눅10:2) 하는 기도다.

한동안 영성세미나에 참석하면 울컥할 때가 많았다. 일꾼을 골라 쓰고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성공의 비결인데, 얼마 안 되는 성도 중에 가려 쓸 일꾼이 어디에 있는지 한 맺힌 기도가 절로 나왔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원근 각처에서 일꾼을 보내주셨다.

청년부 토요찬양예배를 자원하여 만든 친구가 나타났다. 찬양훈련과 기도로 준비된 일꾼이었다. 자비로 악기와 장비를 마련하고, 자차로 운행하며 이 친구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 후에 갈렙 같은 친구가 뒤이어 또 나타났다. 스스로 자원하여 단 한 명도 없는 유초등부 부서를 맡아 처음으로 유초등부 예배를 만든 친구다. 비단 교육부서뿐만이 아니다. 장년부도 마찬가지다.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해 매 끼니를 챙기고, 식사를 못하는 환자분을 위해 한주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죽을 끓여드린다. 주일마다 요양원에 가 휠체어

로 모시고 오고 모셔다드리는 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분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가 검사를 받고 진료받게 해드리는 일까지 아주 열심이다. 매주 주일과 수요일마다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와 간식을 비치하고 대접하는 손길도 있다. 걸음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은 매일 신문 전단지와 물티슈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두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이다. 지면에 적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 역시 일은 일꾼이 하고, 양은 양이 낳는다. 마음 맞는 일꾼은 천하를 쥐도 절대 바꾸지 않는다.

답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왜 병 들고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복 받으면 다냐고 하지만, 주의 일에는 많은 물질이 수반된다. 열매를 맺는 일에는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 사랑은 희생이다. 일꾼들이 전대미문의 복을 받아 더 많이 심고, 이 땅의 복과 상급으로 다시 거두고, 또 심어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남기기를 기도한다. **장순천 목사**

:: 간증 ::

:: 참된 깨달음 ::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년에 결혼하고 올해 3월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라던 자녀여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교 생도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아내는 청년부에서 팀장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청소년 수련회와 대학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아내의 몸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부어올랐습니다. 임신하면 대체로 그런다고 하지만 몸이 너무 부어서 총회장 목사님께 기도 받고 수련회가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지금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며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랐나 봅니다. 눈물까지 보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약속

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늘 입으로 뿌렸습니다. 가까운 이대서울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는 최대한 오래 끌어보겠지만 쉽진 않겠다며 조산을 우려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40주(10개월) 후에 태어나지만 우리 조이(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지은 태명)는 이제 겨우 24주를 넘기는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2~3일을 기도로 살았습니다. 25주가 딱 되는 날,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급히 지금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아이를 꺼내야 할 것 같다며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놀랐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는데 이렇게 데려가실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하신 분이시다.’ 아이를 급히 응급제왕으로 꺼내기로 결정하고 수술은 진행되었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조이는 480g이라는 미숙아로 남들보다 빨리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조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혼자 쉬지 못해 기도삽관을 했고, 온몸에 살보다는 피가 더 흥건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보호자인 나를 따로 불러 아이를 급해서 꺼내긴 했는데, 앞으로 한 달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잉태케 하셨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조이를 죽게 내버려두실 거란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두 주 지나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컸던 일은 아이의 동맥관이 닫혀야 하는데 닫히지 않아서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아이여서 가슴만은 가르지 않았으면 했지만, 아이가 숨을 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슴은 갈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워낙 작은 아이라 3cm를 갈라도 온몸의 절반인 썸이니 흉터가 생기면 마음이 아플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니 그 흉터마저 기적처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퇴원할 때 호흡기는 다 제거하고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늘 함께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떤 호흡기도 달지 않고 자연적으로 숨도 잘 쉬고 수유도 잘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교회신문에 실릴 때면 퇴원해 집에서 조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에서 보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혹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차례라는 뜻이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시94:9).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명훈 생도**

어둠을 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일어나 불을 밝히자 **봉우 이호석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예수님의 건강관리

오늘은 예수님의 생전에 사셨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것 외의 육체적인 건강의 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셨습니다. “새벽 아직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막1:35)는 말씀처럼, 새벽의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그분의 하루를 이끌었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막6:31) 하신 말씀은, 쉬이 곧 믿음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식생활은 단순하고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빵과 물고기, 포도와 올리브, 그리고 물 — 그분은 탐식하지 않으시고 늘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마4:4)라는 말씀처럼,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꾸는 행위

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걸으셨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걸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하루 수십 리를 걸으며 흠뻑 땀을 흘린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건강과 생명의 발걸음이 됩니다. 꾸준히 걷는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었습니다. 염려 대신 신뢰를, 분노 대신 용서를, 불안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14:1)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하며, 병든 자와 외로운 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랑을 주는 일은 곧 자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나눔과 교제는 영혼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며, 새로운 힘을 얻는 영적 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늘 자연과 함께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들과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햇빛과 바람, 푸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느끼며 사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와 빠른 세상 속에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활을 돌아보면 건강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며, 절제하고, 걷고, 사랑하며, 쉬는 것 — 이 단순한 습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번 한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과 마음도 함께 건강한 시작을 기도합니다. **Dr. 설재현 집사**

주의 종을 잘 섬기자

청·장년부 예배 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주의 종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올바른 종을 만났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며,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 목회자일 경우, 내 가족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므로 마음속으로라도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종답게 대접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자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며 나를 되돌아보았다.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 1학년(35년 전) 때 전도사님이 되셨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으셔서, 어린 나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큰 불만이었고, 내가 잘못된 것의 핑곗거리가 되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고, 어쩌면 나는 그런 어머니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모진 말도 많이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많았다. 어머니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기도로 응원 한 번 해드리지 못했다. 어릴 때는 어려서 그렇다 치지만, 커서도 어머니이기 이전에 주의 종으로 대접하고 모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어머니이기 이전에 주의 종이라는 직분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으로 어머니를 잘 섬기고 모시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담당 목사님과 총회장 목사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도 다시금 깨달았다.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의 태의 문이 열렸고,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가 축복을 받았으며, 엘리사를 통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자가 되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마10:41). **송명국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